

# 맛벌이 유연근무제 경찰·소방관엔 ‘그림의 떡’

## 교대근무·팀제 운영 탓 활용 전무...대책 절실

### 광주 5개 구청 행정직 등 활용비율 16% 저조

정부가 가사·육아 등 맛벌이 부부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소방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경찰·소방공무원들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역차별이란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도 유연근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5개 구청 공무원 4260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공무원 수는 672명(15.8%)이다. 이들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901건이다.

각 구별로는 ▲동구 612명 중 142명(23.2%) ▲서구 722명 중 75명(10.4%) ▲남구 700명 중 214명(30.6%) ▲북구 1014명 중 52명(5.1%) ▲광산구 1212명 중 189명(15.6%) 등이다.

반면 광주지역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전체 소방공무원 1128명 중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경찰공무원 3050명 중 유연근무제를 신청·활용한 직원도 없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달리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업 특성상 교대근무가 이뤄지고 팀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근무교대시간에 맞춰 앞 근무자와 근무교대가 이뤄져야 하는 물론 팀제 특성상 팀원 한 명이 빠지면 대체 인력이 오더라도 손발이 맞지

않아 자칫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은 어린 자식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 등·하교 해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주로 교대근무를 하고 팀별로 운영되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을 감안, 유연근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내근직들은(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동료 생각하면 눈치가 보인다. 별도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육아·가사 등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들이 형편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장소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유연근무제 유형엔 시차출퇴근(하루 9시간 근무 원칙에 출퇴근 시간조정)·근무시간선택형(주5일 근무 원칙 아래 하루 근무시간 4~12시간 조정)·재택근무형·스마트워킹근무형(자신에 맞게 조성된 자택 인근 사무실 근무) 등 네 가지가 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시민회관 새단장 19일 광주시 남구 구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이 2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겉모습을 드러냈다.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새 단장 한 시민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야외 공연장과 실내 소극장, 전시실 등을 갖췄다. 개관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48, 달돋이 06:53, 달질 17:41

**대한(大寒) 맞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3/8	보성	구름많음	-6/7
목포	구름많음	-2/7	순천	구름많음	-2/9
여수	구름많음	-1/7	영광	구름많음	-4/7
나주	구름많음	-5/8	진도	구름많음	-2/8
완도	구름많음	-1/8	전주	구름많음	-4/6
구례	구름많음	-7/8	군산	구름많음	-4/4
강남	구름많음	-3/8	남원	구름많음	-6/6
해남	구름많음	-3/8	홍산도	구름많음	2/5
장성	구름많음	-5/8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안바다	북~북동	0.5~1.0	동	0.5
남부	안바다	북~북동	1.0~2.0	동~남동	0.5~1.0
남해	안바다	북~북동	0.5~1.0	동~남동	0.5
서부	안바다(동)	북~북동	0.5~1.5	동~남동	0.5~1.0
	안바다(서)	북~북동	0.5~1.5	동~남동	0.5~1.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6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24	14:14	06:56	19:37
여수	밀물		썰물	
	09:11	21:13	02:28	15:15

**주간 날씨**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	☁	☀	☀	☁	☁	☁
1/7	1/6	-1/7	-1/8	1/8	4/8	5/7

## 포근한 大寒

### 광주·전남 낮 최고 9도

‘소한(小寒)에 얼었던 얼음이 대한(大寒)에 녹는다’는 속담처럼 광주·전남의 대한(20일)은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며 “따뜻한 공기가 구름에 막혀 대기권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다”고 19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6도~9도로 평년과 비교해 아침 기온은 1도가량 낮고 오후엔 2~3도

가량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5도~8도.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별다른 추위 없이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한편 올해 1월1일~18일까지 동기간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은 평년(1984~2014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기온은 1.2도(평년 0.9), 최고기온도 6도(평년 5.5도)로 각각 0.3~0.5도 가량 높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남 도민 80% “교육감 직선제 선호”

### 47%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정책 잘한 일”

전남지역 학부모 등 전남도민 80.7%는 ‘교육감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역 학부모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교육자치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0.7%가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14.3%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40대가 찬성

비율(85.7%)이 높았고,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반대(20.5%)가 많았다.

‘직선제 반대’ 응답자 중 62%는 대안으로 ‘유·초·중·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에 의한 제한적 직선제’를 원했다.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임명’ 21.8%, ‘도지사와 러닝메이트’ 6.0%였다.

전남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61.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4.0%는 ‘불만족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잘한 교육정책으로는 46.9%(복수 응답)가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를 꼽았다. 이어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35.9%), ‘작은학교 살리기 등 농어촌교육 활성화’(32.2%),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18.2%),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17.4%)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30~31일 전남에 거주하는 전남도민과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3.1%다.

박정용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93%

### “자기계발 등 평생교육 필요”

전남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을 받은 도민 93%가 평생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 6월 도내 평생교육 기관 225곳과 학습자 12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46.7%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46.5%는 “필요한 편이다”고 응답했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는 남자(21.7%)

보다 여자(78.3%)가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7.7%), 30대(27.7%), 50대(16.7%), 20대(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32.2%), 전문직(16.1%), 관리·사무직(11.5%) 순이었다. 평생교육 기관 교육 분야는 문화예술(32.9%), 인문교양(25.5%), 직업능력(19.2%) 순이었다. 학습 참여 동기는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47.2%), 취미·여가생활(22.6%), 나의 삶의 활력(11%),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승진 도움(9.2%) 순이었다.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시간이 맞지 않다(21.1%), 교육 안내 및 정보 부족(18.7%) 등을 꼽았다. 학습자들은 이어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1.7%), 교육기관의 확대 및 시설 확충(16.4%), 우수한 강사 양성(15.6%) 등을 평생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철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문해교육 교원 양성,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 山 프리모 남여기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도) 대산프리모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세대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쪽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데!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일 맞출만큼 손님을 꼭꼭 챙기는 반응을 얻고있습니다.